

	<b>보 도 자 료</b>		<b>전주국제영화제</b>
<b>배포일</b>	2025. 04. 07.	<b>보도 요청일</b>	2025. 04. 07.
<b>답 당</b>	홍보미디어팀	<b>취재 문의</b>	063)280-7912 publicity@jeonjufest.kr

**영화를 통해 문화를 나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벤쿠버국제영화제 교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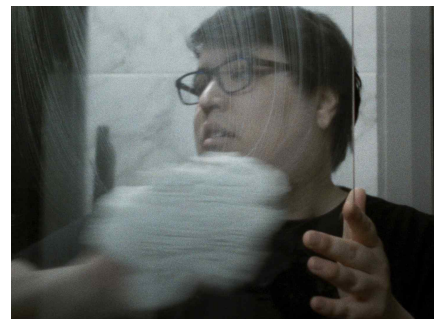
**‘캐나다 포커스’로 캐나다 영화 소개**

-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한 캐나다대사관, 캐나다 예술위원회와 함께 캐나다 포커스 진행
- 캐나다 대표 거장부터 재능 넘치는 신예 감독들의 영화 10편 상영, 게스트 10명 전주 방문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벤쿠버국제영화제와의 교류 프로그램 ‘캐나다 포커스’ 상영작을 공개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한캐나다대사관, 캐나다 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of Arts)와 함께 ‘캐나다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캐나다 영화 10편을 선보인다. 캐나다 포커스는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영화를 통해 캐나다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도 볼 수 있어 상영작들 역시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벤쿠버국제영화제와의 문화교류 사업으로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전주국제영화제가 끝난 후 올해 10월 2일(목)부터 10월 12일(일)까지 개최되는 벤쿠버국제영화제에서는 ‘코리아 포커스’도 선보여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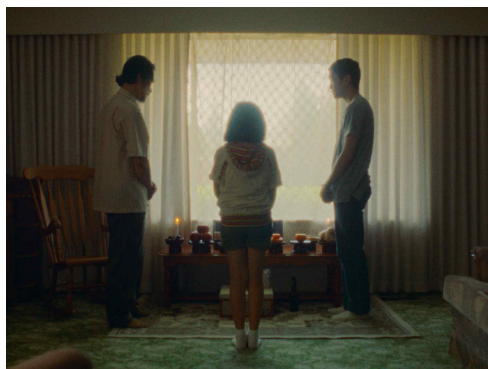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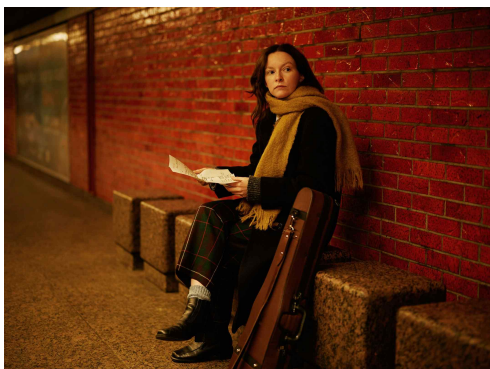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번 캐나다 포커스를 통해 캐나다를 대표하는 거장 가이 매딘, 드니 코테 등의 신작부터 재능있는 캐나다 신예 감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똥소문>, <니키의 마지막 나날>, <폴>

우선 캐나다를 대표하는 거장 가이 매딘과 에번 존슨, 게일런 존슨이 공동연출한 <똥소문>, 드니 코테 감독의 <니키의 마지막 나날>, <폴>은 마스터즈 섹션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이중 <똥소문>은 G7 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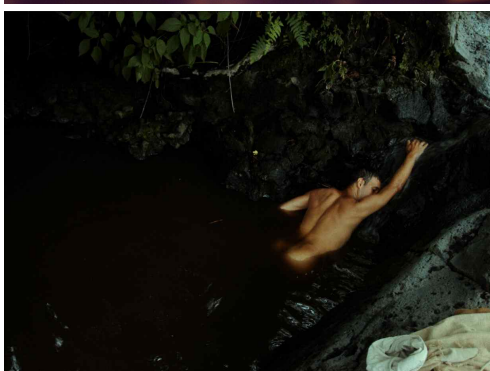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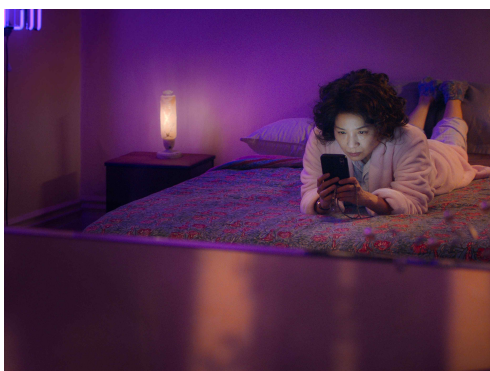
회담에서 세계의 종말을 마주한 지도자 7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그린 총체적 풍자극으로 케이트 블란쳇, 알리시아 비칸데르, 로이 뒤피, 찰스 댄스 등 내로라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왼쪽부터 <장례를 위한 준비>, <잡종>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검증된 작품들을 포함해 각국 감독들의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월드시네마 섹션에서는 캐나다 감독들의 색다른 문화적 시선의 영화를 볼 수 있다. 우선 2020 전주국제영화제에서 <MS 슬라빅 7>(2019)로 전주국제영화제와 인연이 있는 소피아 보흐다노비치 감독이 올해 신작 <장례를 위한 준비>로 전주국제영화제를 다시 찾는다.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배우이자 감독인 제롬 유 감독은 캐나다에 정착한 한인 가족의 이야기인 <잡종>으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작품성과 대중성으로 다양한 세대의 관객이 즐길 수 있는 시네마천국 섹션과 전주국제영화제의 혁신성과 실험성을 대표하는 영화보다 낫선 섹션에서도 캐나다 영화의 독특한 개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네마천국 섹션에서 중국계 캐나다 감독 조니 마는 <엄마와 곰>을 통해 사고로 코마 상태에 놓인 딸을 만나러 한국에 있던 엄마가 캐나다 위니펙으로 와 한인 커뮤니티에 녹아들며 벌어지는 훈훈한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보다 낫선 섹션에서는 말레나 슬람 감독의 <지구 뼈의 다도해 - 버냐산맥으로 가는 길>과 레인 베르메트 감독의 <블랙 스크린>을 볼 수 있다.



좌측 상단부터(시계방향) <엄마와 곰>, <지구 뼈의 다도해 - 버냐산맥으로 가는 길>, <블랙 스크린>, <밤의 라사로>

마지막으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의 '특별전: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 섹션에서 자본에 독립되어 자신만의 스타일이 돋보이는 캐나다 독립영화 니콜라스 페레다 감독의 <밤의 라사로>가 상영될 예정이다.

실험성부터 대중성까지 고루 갖춘 캐나다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30일(수)부터 5월 9일(금)까지 전주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26번째 도전으로 관객과 만난다.

### 캐나다 포커스 상영작

가나다 순

작품명	감독명	제작 국가	상영 섹션
니키의 마지막 나날 <i>Days Before the Death of Nicky</i>	드니 코테 Denis CÔTÉ	Canada	마스터즈
똥소문 <i>Rumours</i>	에번 존슨, 게일런 존슨, 가이 매딘 Evan JOHNSON, Galen JOHNSON, Guy MADDIN	Canada, Germany, Hungar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마스터즈
밤의 라사로 <i>Lázaro at Night</i>	니콜라스 페레다 Nicolás PEREDA	Mexico, Canada	특별전: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
블랙 스크린 <i>A Black Screen Too</i>	레인 베르메트 Rhayne VERMETTE	Canada	영화보다 낫선
아기 천사 <i>Cherub</i>	데빈 시어스 Devin SHEARS	Canada	국제경쟁
엄마와 곰 <i>The Mother and the Bear</i>	조니 마 Johnny MA	Canada	시네마천국
잡종 <i>Mongrels</i>	제롬 유 Jerome YOO	Canada	월드시네마
장례를 위한 준비 <i>Measures for a Funeral</i>	소피아 보흐다노비치 Sofia BOHDANOWICZ	Canada, United Kingdom, Norway	월드시네마
지구 뼈의 다도해 - 버나산맥으로 가는 길 <i>Archipelago of Earthen Bones — To Bunya</i>	말레나 슬람 Malena SZLAM	Canada, Australia, Chile	영화보다 낫선
폴 <i>Paul</i>	드니 코테 Denis CÔTÉ	Canada	마스터즈